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 예측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배 윤 지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미래예측에 관한 다분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인 미래 패션과 의생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적 미래 패션과 연관 의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선행된 미래보고서에 나타난 미래 트렌드와 의생활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 의류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 의생활의 큰 흐름을 예측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가 가장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항목은 ‘빈티지 의류 유통의 활성화’, ‘공유경제 의식 고취로 인한 렌탈 서비스 활성화’,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미래 의생활의 주요 트렌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 ‘일상복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실버 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반면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와 ‘빈티지 의류 유통의 활성화’의 트렌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 매트릭스를 통하여 각 항목들의 분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친화적’ 의생활로 구분되는 1군집, ‘환경 친화적’ 의생활의 태도를 보이는 2군집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출된 핵심동인들을 설문주제어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개괄적인 논의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세분화된 항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보다 밀도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의류산업이 각 상황에 맞는 뚜렷한 방향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델파이 기법, 미래예측, 의생활 트렌드, 한국의 미래 트렌드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sooha@snu.ac.kr

접수일: 2017년 1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2월 22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8일

I.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상황들은 의류산업에 있어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미래 패션과 의생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미래예측에는 천재적 예측, 추세영향분석, 로드맵, 시나리오 등 일반적으로 4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미래연구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다(Gordon & Glenn, 2003).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미래예측 자료들이 대부분 2040년을 전후하는 시점까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구의 시기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미래 패션과 연관 의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기적 예측보다는 장기적 예측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적인 판단을 취합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며 익명성과 피드백이 핵심적인 특징이다(Noh, 2006). 델파이 기법은 개인의 천재적 예측보다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합한 예측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Park, 2013). 이러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선행된 미래보고서에 나타난 미래 트렌드와 의생활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 의류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 의생활의 큰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래 연구 방법론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유엔미래포럼은 1996

년 설립되어 매년 「유엔미래보고서」를 발간중이고, 미래예측기법 3.0(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ersion 3.0)에서 41개의 미래예측기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Park, 2013). 현재 국내에서도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 예측 및 전략 수립의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래예측방법은 정치, 경제, 행정, 교육 그리고 민간 산업분야 등 다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 구현, 경제 동향 예측, 미래 인재 교육 지침의 마련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예측에 관한 방법론은 1907년 코럼 길피란(Colum Gilfillan)에 의해 시작된 이후 1960년대 허먼 칸(Herman Kahn)에 의해 하나의 학문으로 확립되었으며 테드 고든(Theodore J. Gordon)과 제롬 글렌(Jerome C. Glenn) 등 미래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다(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글렌은 유엔 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에서 진행된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ium project)의 일부로 미래연구방법론(Futures research methodology)을 체계화 하였다.

미래학자들은 규범적 예측과 탐험적 예측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규범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후자는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측 방식은 한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다소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의 구체적인 설정과 목적에 맞도록 적절히 배합되어 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Gordon & Glenn, 2003). 미래연구방법론에서는 또한 그 속성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기준으로 다양한 기법들을 분류하고 있다. 정성적 기법으로는 환경 스캐닝, 델파이 기법, 천재적 예측 등이 있으며 정량적 기법으로는 추세영향분석, 교차영향분석, 의사결정모델링 등이 있다. 미래연구방법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분류될 수 있다. 즉 판단을 모을 때, 시계열과 다른 양적 방법 예측하기, 사건과 유행 그리고 움직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불확실성 하의 행동을 정할 때, 그럴듯한 대안 미래 제시, 미래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관계 성립, 변화와 가정 추적,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들이 구분되어 사용된다(Park, 2013).

본 연구에서는 2040년을 전후로 하는 중장기적 미래 패션과 연관 의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며 객관적 타당성을 지남과 동시에 다각적 접근을 통해 의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추세영향분석 등 단기적 예측보다는 장기적 예측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래예측의 사전 준비단계가 되는 환경스캐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다. 천재적 예측도 미래예측에 있어 전문가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이기는 하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델파이 기법의 적용은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된 핵심 요인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미래상으로 기술하는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미래 의생활 예측에 적합한 방법론의 선정

한국의 미래 의생활 예측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앞에서 살펴 본 미래연구방법론들의 용도와 특성, 장·단점을 토대로 이에 적합한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의류산업 분야에서 선행된 미래예측 자료와 보고서에 활용된 방법들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Lee(2000)는 미래사회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인 의복을 제작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상에 따른 노인 의복 시장이나 제작 기술, 구매 행동 등의 상호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m and Koo(2000)는 신소재의 미래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미래 발전 동향을 예측하였다. 문헌과 선행연구, 섬유전문잡지의 관련 기사를 도출하여 시계열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출시된 신소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동향을 파악하였고 이를 곧 소비자의 니즈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추세영향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적 분석을 통해 발전 동향을 예측함에 있어 신뢰도를 높였으나 단기적으로 이어질 추세에 대한 예측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Choi(2007)와 Yoo(2007)는 ‘패션정보와 기술’지에서 각각 ‘21세기를 맞이하는 패션의 성공전략’과 ‘패션 민주주의와 한국 패션의 미래’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유재부는 의류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약 6개월 전에 시행되는 패션 컬렉션은 디자인 복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자구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고 한국에서도 패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대문과 용산에 패션·예술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시대를 읽는 개인적 견문과 통찰력, 직관을 토대로 한 천재적 예측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상당부분 예측이 2016년 현재에 현실화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의 견해가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섬유·패션산업 구조

혁신 전략 보고서(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06)에서 국내·외의 섬유·패션산업의 환경변화와 현황을 조사하고 SWOT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술과 패션, 그리고 브랜드가 접목된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세계 4위 섬유·패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수출이 2015년에는 250억 달러로 신장할 것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전망하였으나 실제 2015년 섬유수출은 143억달러에 그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현황분석을 포함하는 추세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SWOT분석이 5년 이상의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변화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조사 기관인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리서치 그룹(Business Information Research Group)에서는 산업 원천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 4대 상위 브랜드를 선정하는 예측 보고서인 ‘섬유·의류 산업과 IT융합 개발동향과 전망’(Business Information Research Group, 2012)을 발간하였다. 한 예로 2013년까지 실버산업용 헬스케어 섬유가 발전하고 2017년까지 BT(bio technology)융합 섬유제품, 2020년까지는 인공장기소재의 기술이 순차적으로 발달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이는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드맵 예측 방법은 이와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사안들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하나 특정 기술 분야에 국한되어 활용되었을 때 그 효용성이 극대화를 이루며 다양한 미래 사회의 현상을 전반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2040년을 전후로 하는 중장기적 미래 패션과 연관 의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객관적 타당성을 지님과 동시에 다각적 접근을 통해 의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추세영향분석 등 단기적

예측보다는 장기적 예측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미래예측의 사전 준비단계가 되는 환경스캐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천재적 예측도 미래예측에 있어 전문가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이기도 하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스캐닝은 정성적, 탐험적 접근 방식이며 델파이 기법은 정성적, 규범적, 탐험적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장기적 예측에 적합한 방법이므로 기존의 의류산업분야 예측에서 나타났던 편향적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개인의 천재적 예측보다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합한 예측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다. 즉, ‘전문가 합의법’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설문 반복을 통해 문제해결이나 미래예측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이 기법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지 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집단 의견을 수렴한다(Park, 2013).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직접 대면을 하게 될 경우 다수의 의견이나 구성원 간의 상호적인 영향으로 인해 의견을 소극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저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며 수렴된

의견은 다음 라운드의 설문을 위하여 모두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 설문을 통하여 응답의 범위를 함축 하에 좁혀가는 것이다. 이러한 델파이는 미래예측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슈, 요인, 추세 등을 파악함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직관을 이용하며 전통적 델파이, 정책 델파이, 의사결정 델파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Kim, 2007).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는 유사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한 평균치를 제시하여 같은 설문을 몇 차례 반복하는 형식으로 유사한 절차를 지닌다. 그러나 전통적인 델파이는 특정한 주제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책 델파이는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취합하여 합의의 여부보다는 이에 대한 근거와 개연성의 설명을 통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사결정 델파이는 실제로 의사를 결정해야하는 위치나 상황에 놓인 사람을 주축으로 그들의 인식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차별점이 있다(Kim, 2007).

델파이 기법은 그 절차에 있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한 4단계의 방법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1라운드-브레인스토밍과 주제 정의, 2라운드-설문을 통한 발생가능시기 예측 및 결과의 제시, 3라운드-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재설문을 통한 응답 수정의 기회 제공 후 취합 및 분석, 4라운드-3차 설문을 통한 응답 수정의 기회 제공 및 최종 결과 종합, 예측시기 발표의 단계로 진행된다. 둘째는 변형된 델파이 기법으로 상황에 따라 절차의 구성을 간소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설문의 횟수를 축소할 수 있다(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Kim, 2007). 또한 기존의 우편이나 팩스 등의 접촉 방식에서 진보된 전자우편이나 실시간 온라인 설문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편의성

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미래 의생활의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이러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모호할 수 있는 의견의 불확실성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델파이의 주된 장점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주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데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통계적 결과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Park, 2008).

III. 연구방법

1. 설문 대상의 선정

설문 대상은 연구 및 교육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전문성이 높은 국내 의류학과와 패션디자인과 교수 및 연구자로 한정하였고,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대상을 선정하여 총 25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의류산업계 종사자와 관련 저널리스트 등 대상을 광범위하게 선정할 경우 해당 특정 실무 분야의 전문적 견해에는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특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의생활을 예측하고자 학계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델파이 설문에서는 연구 주제에 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자, 연구 분야의 저술이나 논문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로 대개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하나(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검증을 거쳐 발간된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출된 전반적인 미래 의생활 트렌드를 활용하였고 이에 관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다소 유연하게 수용하였다.

본 설문을 위해 예비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차 설문은 2016년 2월 15일에서 2월 29일까지, 2차는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예비설문을 통해 설문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의 승인 하에 본 설문은 1차가 2016년 5월 3일에서 8일까지, 2차가 2016년 5월 10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차에서 25부, 2차에서 25부가 회수되어 최종적으로 25부의 응답이 설문 분석에 활용 되었다.

본 연구에 응답자로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총 25명 중 30대가 15명(60%), 40대가 6명(24%), 50대가 4명(16%)로 평균 36세 정도의 연령대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약 5년 이상에서 30년 정도의 평균 12.3년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이 45.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0.8%,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6.7%,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2.5%, 30년 이상이 4.2%로 나타났다. 세부전공을 보면 패션디자인이 87.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패션마케팅(4.2%), 복식사(4.2%), 의복인간공학(4.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자들의 추천인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도의 신뢰도에 객관성을 높였으며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전혀 전문적 지식 없음’을 1로 하고 ‘매우 전문적 지식 보유’를 5로 하여 평가한 결과 총 25명 중 14명이 4점(56%), 11명이 5점(44%)으로 측정하여 평균 4.44의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4단계로 진행되는 기존방식 대신 변형된 텔파이 기법으로 2단계에 걸쳐 설문을 진행하여 간소화 하였다(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대개의

경우 1라운드 설문에서 브레인스토밍과 의견수렴을 통해 설문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핵심 주제들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생략하고 본 연구자의 사전 연구(Bae, 2016)를 통해 제시된 주제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1라운드에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며 취합된 응답의 평균치를 도출, 2라운드에서 이를 제시하고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최종 응답을 수렴하였다. 진행 방법은 전자서신을 통하여 설문을 배포, 수집하였으며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구글 설문 시스템(google survey)을 활용, 제시된 온라인 링크를 통하여 PC와 휴대폰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한국의 미래 트렌드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 의생활 트렌드 간의 연관성에 관한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그 정도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응답은 SPSS 23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치와 표준편차값을 함께 기술하였다. 또한 이렇게 평가된 항목들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법을 응용하여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을 X축으로, 영향력을 Y축으로 하는 분석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

미래예측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문헌들에 나타난 의생활 관련 논의를 도출하여 얻은 20개의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Bae, 2016)가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헬스케어 의료,

Table 1.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

주요 트렌드	하위 트렌드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버 중심	• 실버 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	25	3.00	5.00	4.5600	.65064
IT 의류 (information technology)	• 일상복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25	3.00	5.00	3.9600	.67577
	• 의류제품 RFID 보편화	25	3.00	5.00	4.0800	.64031
	• 패션스타일링과 쇼핑을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상용화	25	3.00	5.00	4.0800	.64031
	•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의 확산 및 보편화	25	3.00	5.00	4.6400	.56862
	• SNS를 기반으로 RFID, NFC, Beacon의 활용 일반화	25	3.00	5.00	4.3200	.55678
	•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	25	2.00	5.00	3.4800	.77028
BT 의류 (bio technology)	•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	25	4.00	5.00	4.6800	.47610
	•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의류의 부상	25	3.00	5.00	4.3600	.70000
	• 근육기능 보조, 두뇌제어 외골격 로봇 등 인체대체 의류의 부상	25	3.00	5.00	4.0000	.64550
NT 의류 (nano technology)	• 나노기술 특화 소재를 활용한 환경반응형 의복의 일반화	25	4.00	5.00	4.2000	.40825
	• 고감도 센서 직물의 활용 활성화	25	3.00	5.00	4.1600	.47258
	• 나노기술을 통한 인간 친화적 스마트 웨어의 구현 가능성 강화	25	3.00	5.00	4.1600	.55377
3D 의류	• 3D 프린팅 의류의 보편화	25	2.00	5.00	3.8800	.92736
	• 3D 가상 제작, 피팅 등을 통한 대량맞춤 생산방식 활성화	25	3.00	5.00	4.3200	.74833
신소재	• 경량·고강도 소재로서의 새로운 케블라 섬유 부상	25	3.00	5.00	3.9600	.45461
친환경과 자원절약	• 친환경적 의류 기업의 보편화	25	3.00	5.00	4.0000	.50000
	• 빈티지 의류 유통 활성화	25	2.00	5.00	3.3600	.70000
	• 공유경제 의식 고취로 렌탈 서비스 활성화	25	2.00	5.00	3.4400	.65064
	• 물 없이 작동하는 세탁기, 방오 소재의류 등 자원 절약의 풍조 활성화	25	3.00	5.00	3.8800	.60000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가 4.68의 매우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어 가장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근접한 차이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의 확산 및 보편화'가 4.64의 평균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버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가 4.56의 평균치로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항목은 '빈티지 의류 유통의 활성화', '공유경제 의식 고취로 인한 렌탈 서비스 활성화',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로 각각 3.34, 3.44, 3.48의 보통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는 한국의 미래 주요 트렌드인 고령화 사회를 고려했을 때 건강관리 및 신체기능 증진의 기능을 지니는 의류가 가장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기능성 의류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의 확산 및 보편화'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결합된 의류의 주요 트렌드 중 가장

높은 발생가능성을 평가받았는데 이는 직접적인 기술이 구현되는 의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통방식이 크게 부상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유명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신개념의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방식보다 오히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물론 구매자들의 평가까지 교환할 수 있어 이러한 옴니채널 방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는 IT와 의복의 결합 트렌드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발생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빈치 2, 최대치를 5로 하여 표준편차가 .77028로 다소 의견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현실 패션쇼는 3D 기법으로 촬영된 런웨이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나 가상체험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장소나 시간, 계절의 제약을 축소시키면서도 현실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여 현재 패션업계에서도 일부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체험할 수 있는 장비의 마련이나 기술적 구현의 한계 등 제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3D 프린팅 의류의 보편화’ 트렌드는 최빈치 2, 최대치 5의 평균 3.88로 보통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발생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표준편차가 .92736으로 의견이 차이가 매우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의류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로 이미 상당부분 3D 프린팅 기술이 의류에 접목되고 있지만 상용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많은 한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미래 의생활 트렌드가 최첨단의 정보기술, 과학기술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큰 흐름 속에 이로 인한 기계 중심적인 사고와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인식은 계속 고취될

것이며 친환경과 자원절약의 풍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친환경적 의류 기업의 보편화’ 트렌드는 비교적 큰 발생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빈티지 의류 유통 증가’, ‘공유경제 의식 고취로 인한 렌탈 서비스 활성화’는 보통 정도의 발생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의류가 개인적인 선호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영향력

한국의 미래 의생활의 주요 트렌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 ‘일상복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실버 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로 모두 4.44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는 최소값 4, 최대값 5의 표준편차 .50662를 나타내어 의견의 차이가 나머지 두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와 ‘빈티지 의류 유통의 활성화’의 트렌드는 각각 3.3, 3.32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발생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IT를 기반으로 하는 의류산업의 변화가 유통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의류제품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등 직접적 기술의 도입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통경로의 확장과 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육기능 보조, 두뇌케어 외골격 로봇 등 인체대체 의류의 부상’ 또한 기술적 구현이 실현될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는 3.3의 평균치

Table 2.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사회적 영향력.

주요 트렌드	하위 트렌드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실버 중심	• 실버 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	25	3.00	5.00	4.4400	.58310
IT 의류 (information technology)	• 일상복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25	3.00	5.00	4.4000	.57735
	• 의류제품 RFID 보편화	25	3.00	5.00	4.1200	.72572
	• 패션스타일링과 쇼핑을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상용화	25	3.00	5.00	3.8400	.68799
	•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의 확산 및 보편화	25	3.00	5.00	4.2000	.64550
	• SNS를 기반으로 RFID, NFC, Beacon의 활용 일반화	25	3.00	5.00	4.2000	.57735
	•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	25	2.00	5.00	3.2000	.70711
BT 의류 (bio technology)	•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	25	4.00	5.00	4.4400	.50662
	•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의류의 부상	25	3.00	5.00	4.1600	.62450
	• 근육기능 보조, 두뇌제어 외골격 로봇 등 인체대체 의류의 부상	25	3.00	5.00	4.2000	.57735
NT 의류 (nano technology)	• 나노기술 특화 소재를 활용한 환경반응형 의복의 일반화	25	3.00	5.00	4.1600	.47258
	• 고감도 센서 직물의 활용 활성화	25	3.00	5.00	4.1600	.47258
	• 나노기술을 통한 인간 친화적 스마트 웨어의 구현 가능성 강화	25	3.00	5.00	4.0800	.57155
3D 의류	• 3D 프린팅 의류의 보편화	25	3.00	5.00	3.9600	.61101
	• 3D 가상 제작, 피팅 등을 통한 대량맞춤생산방식 활성화	25	3.00	5.00	3.9600	.67577
신소재	• 경량·고강도 소재로서의 새로운 케블라 섬유 부상	25	3.00	5.00	3.7200	.67823
친환경과 자원절약	• 친환경적 의류 기업의 보편화	25	3.00	5.00	3.8000	.50000
	• 빈티지 의류 유통 활성화	25	2.00	5.00	3.3200	.62716
	• 공유경제 의식 고취로 렌탈 서비스 활성화	25	3.00	5.00	3.5600	.58310
	• 물 없이 작동하는 세탁기, 방오 소재 의류 등 자원 절약의 풍조 활성화	25	3.00	5.00	3.7200	.54160

로 사실상 그 대상이 의류 분야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집단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빈티지 의류 유통의 활성화’는 3.2의 평균치로 최소값 2, 최대값 5의 표준편차가 .62716로 응답에서도 의견차이가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티지 의류는 여전히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발생가능성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의류제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보편화’(4.12)와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3.2)로 각각 .72572, .70711의 값을 나타내었다. 의류제품의 RFID 도입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나 그 자체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시대의 사물 간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을 경우 그 영향력은 크지만 그 자체로서는 파급력이 다소 낮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견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는 보통 수준의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의견의 차이가 다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생가능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패션 분야에 국한되는 트렌드임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매트릭스를 통하여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항목들과 비교적 낮은 항목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Figure 1). 명확한 두

집단의 분류를 위하여 K-평균 군집 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IPA 분석을 응용한 매트릭스 상에 나타난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실버 의류 산업의 활성화’, ‘헬스케어 의류 활성화’, ‘일상복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유니채널의 확산’, ‘SNS (social network services) 기반 마케팅 일반화’, ‘유니버설 디자인 의류의 부상’, ‘고감도 센서 직물의 활용 활성화’, ‘환경반응형 의류의 활성화’, ‘인간친화적 스마트 웨어의 구현’, ‘3D 가상제작 대량맞춤 생산의 활성화’, ‘의류제품 RFID의 보편화’, ‘인체대체 의류’, ‘스타일링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집단인 1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친환경적 의류기업 보편화’,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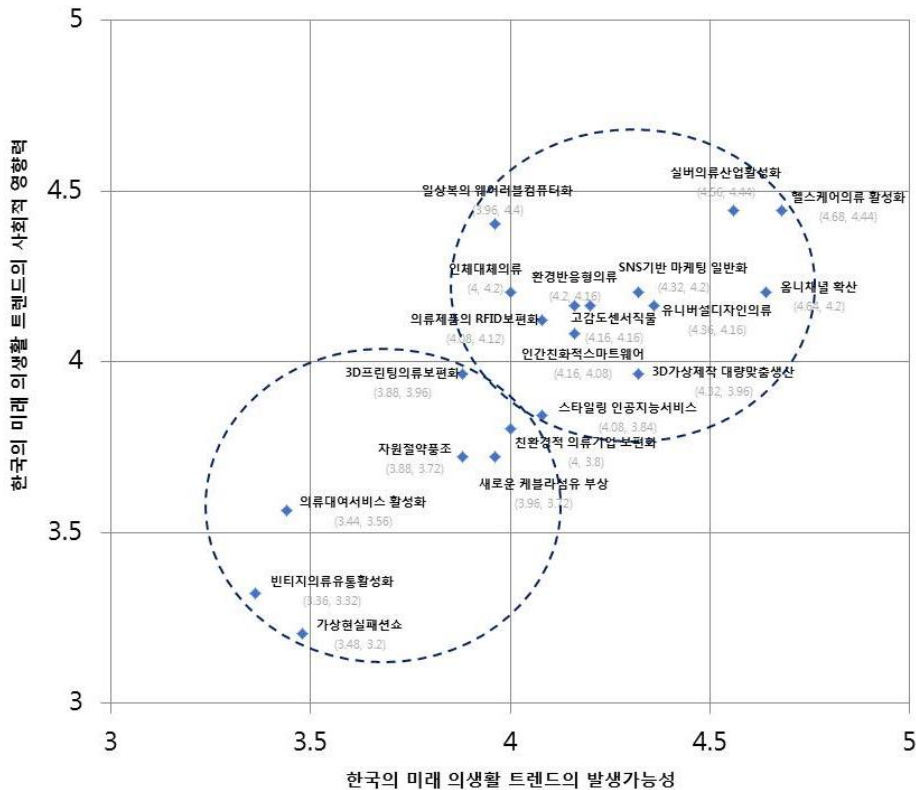


Figure 1.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매트릭스.

Table 3.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항목별 K-평균 군집 분류와 거리.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 항목	군집	거리
1	실버 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	1	.388
2	일상복의 웨어러블 컴퓨터화	1	.380
3	의류제품 RFID 보편화	1	.200
4	패션스타일링과 쇼핑을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상용화	1	.391
5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의 확산 및 보편화	1	.370
6	SNS를 기반으로 RFID, NFC, Beacon의 활용 일반화	1	.053
7	가상현실 패션쇼의 대중화	2	.473
8	헬스케어 의류, 신체기능 증진 의류의 활성화	1	.484
9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의류의 부상	1	.092
10	근육기능 보조, 두뇌제어 외골격 로봇 등 인체대체 의류의 부상	1	.271
11	나노기술 특화 소재를 활용한 환경반응형 의복의 일반화	1	.074
12	고감도 센서 직물의 활용 활성화	1	.113
13	나노기술을 통한 인간 친화적 스마트 웨어의 구현 가능성 강화	1	.150
14	3D 프린팅 의류의 보편화	2	.386
15	3D 가상 제작, 피팅 등을 통한 대량맞춤생산방식 활성화	1	.227
16	경량·고강도 소재로서의 새로운 케블라 섬유류의 부상	2	.269
17	친환경적 의류 기업의 보편화	2	.342
18	빈티지 의류 유통 활성화	2	.459
19	공유경제 의식 고취로 렌탈 서비스 활성화	2	.279
20	물 없이 작동하는 세탁기, 방오 소재의류 등 자원 절약의 풍조 활성화	2	.198

케블라 섬유류의 부상’, ‘3D 프린팅 의류의 보편화’, ‘자원절약풍조’, ‘가상현실 패션쇼’, ‘의류 대여 서비스의 활성화’, ‘빈티지 의류 유통 활성화’의 의생활 트렌드가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집단인 2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3D 프린팅 의류의 보편화’와 ‘가상현실 패션쇼’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약점과 한계로 낮게 평가되었고 의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바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을 2군집의 주요 트렌드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1군집에 해당하는 트렌드들이 모두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친화적’ 의생활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반면 2군집에 해당하는 트렌드들은 대부분이 ‘환경 친화적’ 의생활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는 기술 친

화적, 환경 친화적으로 양분되는 두 가지 큰 범주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 의생활의 태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류 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과 의복의 결합 부분에 있어 다양한 연구와 개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전히 환경적인 문제와 결부된 의생활의 발생가능성도 평균 이상으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고취와 함께 친환경적 태도를 함께 가지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에는 노인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산업이 성장할 것이므로 의류산업에서도 이러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버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의류, 헬스케어 의류와 같은 기술 기반의 기능성 의류는 인체와 의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구현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마케팅과 유통 측면에서는 옴니채널의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널의 유통경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받고 언제든 원하면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적 의생활은 단순히 상품의 소재나 외적인 부분에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류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판단되는 인지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의류 기업에서는 꾸준한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며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적 기업, 기부 활동, 착한 패션 등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방법의 친환경적 태도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한국의 의생활 변화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미래 한국의 의생활을 예측하였다.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류 분야의 미래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발생가능성에서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IT, BT, NT 등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의생활 트렌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친환경과 자원절약의 트렌드들은 보통수준 이상이지만 다소 낮은 발생가능성을 지

닌 것으로 평가되어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미래 의생활의 변화 경향이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과 의복의 결합 부분에 있어 다양한 연구와 개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적인 문제와 결부된 의생활의 발생가능성도 평균 이상으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의 영향력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실버세대 중심, IT, BT, NT와 의복의 결합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D 기술 결합, 신소재, 친환경과 자원절약의 풍조 트렌드는 보통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미래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주체의 변화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적 의류와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는 유통방식 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며 미래의 의류 산업 또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를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의 정도로 IPA 분석을 응용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한 결과 크게 기술 친화적 의생활과 환경 친화적 의생활로 구분되는 두 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는 미래 의생활 트렌드는 미래의 의류산업이 반드시 고려하여 그 흐름을 함께 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출된 핵심동인들을 설문 주제어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개괄적인 논의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세분화된 항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보다 밀도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의류 산업과 기업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뚜렷한 방향과 목표의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응답자의 다수가 패션디자인 전공에 국한되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의류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와 실무자, 세부 전공을 고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도의 견해와 이를 통한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 세부 트렌드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나리오의 구성을 통한 상황 설정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e, Y. J. (2016). A study on the future clothing trend in Korea: Based on the future research by 204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151-162. doi:10.18652/2016.16.4.9
- Business Information Research Group. (2012). *섬유·의류 산업과 IT융합 개발동향과 전망* [Trends and prospects of textile & apparel industry and IT convergence development]. Seoul: Business Information Research Group.
- Choi, B. H. (2007). Success strategy of fashion in the 21st century. *Fash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4(-), 60-66.
- 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The strategic methodology for futures studies]. Seoul: Dunam.
- Gordon, T. J., & Glenn, J. C. (2003).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ersion, 2* [CD-ROM]. Washington, D.C.: Millennium project of the American council for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 Kim, H. S., & Koo, H. K. (2000). A study on the present and future trend of the new fabrics of apparel.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1), 5-20.
- Kim, S. T. (2007).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국정관리를 위한 미래예측과 미래전략* [Towards another future: Future forecasts and future strategies for state administration]. Paju: Bobmunsa.
-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06).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 [Textile & fashion industry structure innovation strategy]. Seoul: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 Lee, Y. K. (2000). Prospects of elderly people's clothing life according to the shift of life paradigm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18, 369-387.
- Noh, S. Y. (2006).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Delphi technique: Forecasting futures with professional insight]. *Planning and Policy*, 299(-), 53-62.
- Park, K. J. (2008).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Real-time Delphi: Experts predict that anonymity is guaranteed]. *Planning and Policy*, 317(-), 132-139.
- Park, S. C. (2013). *미래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futurology]. Seoul: Chongmok Publisher.
- Yoo, J. B. (2007). Future of fashion democracy and Korean fashion. *Fash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4(-), 67-72.

A Delphi Study to Forecast Future Clothing Trends in Korea

Bae, Yun Jee · Ha, Ji Soo*

Lecture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is more essential than ever that forecasting long-term future trends while multidisciplinary interest in forecasting is on the rise.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predict the change of future clothing trends by 2040. For this study Delphi technique is applied which can increase credibility and objectivity by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clothing trend in Korea indicated that the 'healthcare wear' is most likely to occur. On the other hand, the trends that were less likely to occur were 'revitalization of vintage clothing distribution', 'activation of rental services', and 'popularization of virtual reality fashion shows'. Second,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bout the social impacts of major trends of future clothing in Korea, 'healthcare wear', 'wearable computer as a daily wear', and 'activation of the clothing industry for the silver generation' took a high position. Meanwhile, trends of 'popularization of virtual reality fashion shows' and 'activation of vintage clothing distribution' tend to be somewhat lower than those of other items. Third, the possibility and influence analysis matrix of future clothing trends in Korea provided two groups of the items with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influence, and relatively low items. They were classified as 'technology-friendly' and 'environment friendly' lifestyles. In this study, since the key trends derived from the future reports are used as the main words of the questionnair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contents could be a general discussion. However, it is anticipated that more detailed results will be obtained if the subdivided items are applied to a situation. By providing these basic data, it is expected that the clothing industry and companies will contribute to setting clear directions and targets for each situation.

Key words : Delphi technique, future forecasting, clothing trends, future trends in Korea